

무주 마을로 가는 겨울축제 손짓

1일부터 2월 17일까지 5개 읍면 13개 마을 피자체험·두부 만들기·연날리기 등 진행

무주군 마을로 가는 겨울축제(주최 무주군, 주관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1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가운데 무주읍을 비롯한 5개 읍면 13개 마을이 각각의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을 내세워 관광객들에게 손짓을 보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 앞섬마을과 무풍면 무풍송지마을, 설천면 호룡불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안성면 진원마을이 1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되며 안성면 수락마을은 1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적상면 내창마을은 12월 10일부터 2월 3일, 치목마을은 12월 12일부터 1월 4일, 무주읍 후도마을은 12월 15일부터 2월 3일, 안성면 통안마을은 12월 20일부터 1월 30일, 죽장마을은 12월 20일부터 2월 3일, 적상면 초리마을은 12월 22일부터 2월 10일, 안성면 두문마을은 12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일 or 1박 2일)에서는 피자체험을 비롯한 천연비누만들기, 캠프파이어를 즐길 수 있다.

설천면 호룡불마을(당일)에서는 꽃마차 투어와 떡 만들기를 해볼 수 있으며 "하늘별이 쏟아져 눈이 부시도록 이쁜 무지개 천연염색방"을 체험하게 될 적상면 여원마을에서는 천연염색으로 손수건과 티셔츠, 생필품 만들기를 진행한다. "사그락 사그락 마을이 좋다" 안성면 진원마을(당일)에서는 청국장과 고추장,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맛볼 손 두부를 만들고 숨어도 잡아보자"라고 기뻐한 안성면 수락마을(당일)은 두부 만들기과 송어잡기를 준비한다. "느림으로 치유하는 하늘 길" 적상면 내창마을에서는 역사탐방과 피자만들기, 사찰술래 눈길걷기, 썰매타기 등을

해볼 수 있다. 치목마을은 "할머니와 삼베짜기"를 주제로 두부와 전 만들기를 진행한다.

후도마을에서는 "무릉도원 후도 농어촌 인성학교(1박 2일 or 주간)"를 통해 소망등과 희망바람개비, 희망시계 만들기를 진행한다. 안성면 통안마을(당일)에서는 "눈썰매 타고 고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죽장마을(당일)에서는 썰매타기를 비롯해 와플 만들기과 밤, 고구마, 가래떡 구워먹기를 해볼 수 있다.

적상면 초리마을(당일)에서는 제2회 초리공공놀이축제를 개최한다. 연날리기를 비롯해 지게 윗놀이와 팽이치기, 줄타기, 밤 구워먹기 등이 진행되며 "여업집 수세미의 눈부신 변신"을 준비한 안성면 두문마을(당일)에서는 수세미 비누와 수세미 스탠드, 곤충액자 만들기를 해볼 수 있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김오수 농촌관광 팀장은 "농·산촌 무주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마을의 특색과 주민들의 인정을 듬뿍 담아 준비했다"라며 "그간 마을로 가는 축제를 진행해왔던 노하우들이 쌓이고 주민들의 열정이 더해진만큼 이번 겨울축제도 만족스런 여행이 되길"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마을로 가는 겨울축제 관련정보는 "마을을 잇는 사람들"과 무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바람이는 진안고원길에 서다

군, 매주 토요일 14개 구간서 15km 이어걷기 진행

진안군은 진안고원길 14개 구간 210km 장기 이어걷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어걷기 행사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매주 토요일 한 개 구간씩 평균 15km를 걷는다.

올해는 10월 6일부터 시작된 11월 24일 8차 행사를 마쳤으며, 내년 1월 5일까지 총 14회 실시한다.

진안고원길 이어걷기 프로그램은 하늘땅 진안고원에 희망의 바람이 불기를 염원하며 100여 개 마을과 40여 개의 고개를 지나게 된다.

진안고원의 청량한 풍광을 직접 경험하고 마을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진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또 마을 부녀회에서 끓여 내는 김치찌개나 시래기국에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구간 중간에 위치한 마을회관에서 나누어 먹으며 정을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는 별도 신청 없이 매 회 시작 구간 출발지로 9시까지 오거나 진안민남습지에 8시 30분까지 와



서 카풀을 이용하면 된다. 당일 걷기 도착지에서 출발지로의 이동은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고원길 사무실(☎063-433-5191)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다음카페 '진안고원길'을 이용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간담회

진안군은 지난 28일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첫 지역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사)생태산촌, 전라북도, 무주국유림관리소, 임업기능인훈련원, 진안군 산림조합,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과 산림자원 활용 기본구상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자문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은 산림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에 공모, 지난 8월 최종 선정되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은 지역사회가 도시민·귀산촌인과 연계하여 산림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경제자원, 인적자원, 공동체자원, 시설자원, 기술자원등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정주·일자리 공간 모델이다.

사업대상지는 백운면 백암리로 지역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해 친환경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정주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에 산림청으로부터 컨설팅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되면 핵심 산림자원과 연계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지역거점권역 협의체와 함께 잠재자원 조사·분석, 산촌 특화발전 계획수립 및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2020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진안군은 29일 군청 강당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을 배양 확산하고자 공무원, 독거노인관리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법, 화재 시 대피요령, 교통사고 예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전라북도에서 위촉한 안전분야 교육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각 지역별 소방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전담 소방관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분야는 교통약자 인식개선과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사례중심의 사고동영상을 활용하여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인 각 지역의 경찰관이 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크고 작은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강화로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LPG배관망 준공

고촌마을 외 9개 마을 1200여세대 가스 공급

장수군은 29일 군민회관과 LPG집단 공급소에서 장영수 군수와 김종문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황갑용 한국LPG배관망사업담당 등 내외빈 및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LPG배관망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군민회관에서 열린 1부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 및 사업안내, 포차장·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장수군 LPG배관망구축사업 유공자에게 전달되는 전라북도지사 표창은 장수군 안전재난과 유희선 주무관과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박충진 과장이 수여했다.

또 장수군LPG배관망사업에 공로를 기여한 (주)삼한 최홍식 대표이사과 (주)쌍용건설 김석준 회장, (주)신한종합건설

박남식 대표이사가 공로패를 받았다.

LPG저장시설에서 진행된 2부 행사에는 LPG가스 공급시설 관과와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LPG가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장수군은 2016년 도시·농촌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를 위한 LPG배관망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 돼 총 165억원(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후 2016년 9월 LPG배관망 지원 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착공, 1년여 만에 LPG배관망을 준공해 장수읍 소재 1200여세대에 LPG저장탱크, 배관망, 가스보일러, 안전장치 등을 설치 지원하고 LPG가스 공급을 개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 건의

무주군의회의(의장 유송열)가 제267회 제3차 정례회에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9일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해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의 건설구간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

다는 이유로 착공조차 기약 할 수 없는 요원한 상태가 되어있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주요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국비확보 전력

국회 찾아 29개 주요 핵심사업 400억원 요청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7일과 28일 국회를 찾아 2019년도 국비확보에 공을 들였다.

이날 방문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황 군수는 관계자들을 만나 국비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강조,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2019년도 요구액 5억 원)과 전북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2019년도 요구액 3억 원),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반영을 요청했다.

황 군수는 "이들 사업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무주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것들"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영·호남교류를 통한 동서화합,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무주군 내도리 지역의 친환경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전북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은 임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임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 국산 임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 설천 국도건설(2019년도 요구액 45억 원)등 29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필요 국비 4백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무주군은 지역의 노력과 국가의 지원 속에서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의 삶"이 완벽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